

우리는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우리 후대들에게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행복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김정은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 퍼진다.

6. 1절을 맞이한 부활은 우리 아이들이 약아소와 유치원들에서 그리고 각지에 훌륭하게 꾸러진 육아원과 애육원들에서 즐겁게 노래하며 춤추는 모습이 인민의 마음을 흥겹게 하고 강산을 더욱 젊어지게 하는 듯하다.

혁명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후대들을 제일로 사랑하며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아름다운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혁명활동의 자욱자욱을 따르며 우리모두는 절세위인의 인간미, 후대사랑의 뜨거운 정을 가슴에 새겨두고 있었는가.

오늘 이 땅에 울려 퍼지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대한 헌정은 교마음의 문충인 것이다.

온 나라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세상에 부럼없어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바로 나라의 꽃봉오리들이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한 사업에서부터 높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무릇 아이들의 얼굴에는 당대의 사회상과 정치의 참모습이 비친다. 세상에 이롭던 위인들치고 후대들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전 해도지만 우리 원수님처럼 온 나라 아이들이 모두를 넓고 따사로운 사랑의 함을 인양 보살피고주시고 미래의 주인공으로 훌륭히 키우기 위해 헌신한 분이 없었는다면 이 세상은 어찌 되었을까.

가슴뜨겁게 새겨진다. 구호 《세상에 부럼없어라!》가 제일 좋다. 이 구호를 보기도 하여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이 가슴뜨겁게 어찌는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깊은 말씀이.

정정 얼마나 위대한 후대사랑의 력사가 이 땅위에 새겨졌는가. 후대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미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국의 미래, 인민의 미래를 위해서 후대들을 잘 키우고 돌보아주시고 하시며 피어낸 향일의 나라를 이룩할 것을 위해 국지한 사랑을 불러주시고 애절한 혁명의 후비대로 키워주신 어머니수령님이시었다.

우리 수령님께서 태방후 새 조국 건설로 그처럼 분방하신 속에서도 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첫 걸음으로 아이들의 연립문제를 의논해주시고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중요한 전 쟁의 날도 부모없는 아이들을 생각 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시며 최고사령부에서 몸소 고아들을 기우 신 이야기들은 오늘날 후대사랑의 전설로 길이 전해지고있다.

우리 장군님께 있어서 아이들은 기쁨이고 자랑이며 행복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후대사랑, 미래 사랑에 의해 조국땅에서는 온 나라가 허허미미 울려 퍼져야 했던 그때에도 사랑의 창자들이 거머를 누비며 달려가는 장동같은 화폭이 펼쳐졌다. 그것은 명절이면 사랑의 선물들이 아이들의 가슴에 가득 안겨지고 갖가지 과일과 실은 자물쇠들이 아이들을 찾아가었다.

새 세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나라와 민족의 미래로 보시고 후대들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후대애를 그대로 체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어서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영원히 높이 울려가도록 그토록 마음기울이시며 후대사랑의 감동깊은 화폭을 펼쳐주셨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시간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가에 대하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안다. 온 나라가 단장에 든 이른 새벽에도 시간을 쪼개가시며 헌신하시는 그의 로고와 잠시라도 덜어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안고있는 우리 인민이 아닌가.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느 때든 기꺼이, 아낌없이 내시는 시간이 있다. 그것은 아이들을 찾아가시

는 시간, 후대들을 위해 바치시는 시간이다. 자신의 식사시간은 잊으시고 육아원과 애육원의 원아들이 밥먹을 모습을 정답게 지켜보시는 우리 원수님을 우리들 누구나 눈시울 적시지 않았으랴.

정정 얼마나 다짐하신 우리 원수님이시던 인민군대의 비형부대를 찾았을 때 내성비행사가 무뎠어 드린 정을 잊지 않으시고 대령장에서 아기가 울자마자 지어주시었다. 아이들에게 현대적인 병원을 지어주시기 위해 미래에는 힘한 날 전진장비를 앞세워 전진현장을 찾았

고 인민군인들이 제작한 공민용 놀이기구를 보이시며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한대 대하여 기쁨을 감지 못하시던 그의 모습에서 우리 인민모두는 밝고 창창한 조국의 래일을 보았다.

필사부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늘 일군들에게 강조하시는 이 말씀에 후대들을 위하여는 그의 사랑과 정이 얼마나 뜨겁게 어려웠는 것인가.

평양야동대학점, 문수물놀이장, 옥류야동병원, 경상유치원, 평양 육아원과 애육원, 원산유아원과 애육원... 모든지 풍족해서가 아니었다. 인민을 위해, 후대들을 위해 당하는 국가의 손실은 손실이 아니며 아이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이 지출될수록 우리 당은 더 큰 기쁨을 느끼며 후대들을 위해 더 많은 손실을 당할수록 우리 국가를 더 큰 민족을 느낀다는 것이 어찌도 오늘날도 변함없는 우리 당의 의도이다.

우리 당은 혁명하는 당이며 후대들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투쟁하는 당입니다. ...

우리는 아이들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저절로 울려나오게 하여야 합니다. ...

격정없는 새겨진 글씨 없는 이 절절한 심정의 모로로써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고계시는 후대애, 미래애가 응축되어있다.

지난해 11월 우리 식 현대회의 본보기공장으로 전편된 평양이린이 식료품공장을 찾았을 때 그토록 민족애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환하신 영상이 어찌 잊어지지 않으셨나.

공정구내에 새로 모신 모자이크벽화를 보아주시고 맛있게 영양가 높은 식료를 찾아서 생각하여 어린이들에게 보내주던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가고 절절히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가 어려운 난관을 헤쳐내 혁명을 하려는 조국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이며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면 오늘날은 비록 힘들어도 밝고 창창한 래일을 약속하게 된다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생산정성화이자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공수공수를 비롯한 맛있게 영양가 높은 식료를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강조하셨다.

생산정성화이자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는 길이다. 후대들을 위하여는 우리 원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울심깊은 것일까. 미래에 대한 그의 신념이 얼마나 굳건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위하여는 그의 헌신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있어서 제일 귀한 순간은 어느 때이며 그에게 있어서 제일 행복한 순간은 과연 어느 때인가.

혁명을 위해 무엇이든 해줄 때,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 퍼질 때 우리 원수님께서 는 제일로 기뻐하시고 제일로 행복해하신다고 온 나라 인민들 누구나가 짐작의 목소리를 합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그처럼 사랑하시던 이 땅의 아이들모두를 구급 살없이 행복하게 키우시려는 불같은 열망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이기에 원아들에게 1년 365일 하루도 변질없이 돌고돌고 보살피기 위한 수산사업소를 인민군대에 조직한 데 대한 조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도 하달하셨다.

부모없는 아이들도 우리 혁명의 계승자, 미래의 역군으로 키워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의 숭고한 뜻에 따라달려 아이들의 행복의 요람, 세상에 다시 없는 아이들의 공진들이 솟아오른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귀중한 혁명시간도 아낌없이 바치시고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국가사업의 제일국사로 내세우시며 육친의 정과 사랑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이시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에 안겨 《아버지》라고 스스럼없이 부르곤 온 나라 인민이 목소리를 합쳐 감동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김정은동지수님 우리 의 집은 당의 집이라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고 희망과 미래의 전부이라고 하시며 하나를 주시던 열매를 더 주고 싶어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태양같이 뜨겁고 비바람같이 넓은 그 품속에서 조국의 미래를 지어 나가는 강성조국을 떠메고나갈 주인공들이 성장하고있다.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더욱 위창한 판화 래일을 약속하며, 본사기자 백영 III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속에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나는 행복동아들 - 경상유치원에서 -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원산육아원, 애육원을 현지지도하신 1돐 기념보고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원산육아원, 애육원을 현지지도하신 1돐 기념보고회가 5월 31일 현지에서 진행되었다. 관계부문 일군들, 원산육아원, 애육원의 종업원들이 참가한 보고회에서는 박정남 중앙도당위원장 위원이 기념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주제 104(2015)년 6월 1일 원산육아원, 애육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원아들의 보육교양에서 돌이켜보아야 할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 사랑을 절히 받들며 대원수님들께서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면 그들에게 세상에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원산육아원, 애육원을 직접 방문하시고 신권현명령도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건설장을 여러차례 찾으신다는 사실에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준공식을 앞둔 원산육아원, 애육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원아들의 보육과 교육, 설비관리를 책임적으로 할에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후에도 원아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계속 안겨주시는 뜨거운 온정을 베풀어주시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김일성고급당학교장립 70돐 기념보고회가 5월 31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희봉동지와 당중앙위원회 일군들, 중앙기관, 당일군양성기관, 고급당학교 일군들, 교직원, 학생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합창으로 보고회는 시작되었다. 보고회에서는 명성영 고급당학교 교장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위정적으로 높이 추대할 뿐없는 위치와 영광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명도따라 당 제 7차대회 파업편지를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김일성고급당학교장립 7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김일성고급당학교가 창립된 주제 35(1946)년 8월 1일은 주체적인 당일군양성사업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 우리 당을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철옹성이 굳건해져야 하는 당의 위업을 앞장서서 맡아나갈 참된

그는 가장 숭고한 후대애, 미래애를 지니시고 이 세상 천만부모들의 정을 다 합쳐도 비기지 못할 위대한 사랑으로 원아들의 아름다운 꿈과 밝은 미래를 소중히 지켜주시고 활짝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온 나라 어린이들과 인민들의 자애로운 원아들이시라고 강조하였다.

원산육아원, 애육원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지난 1년간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절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온데 대하여 그는 말하였다.

그는 보육원들과 교양원들이 당의 뜻대로 어머니다운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는 교육자적 자질을 지니고 원아들을 열렬한 애정속에 돌보아주며 도덕률, 온당한 체력을 지닌 나라의 기둥조각을 키우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모든 일군들과 보육원, 교양원들이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뜻을 받들어 맑은 혁명일무를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행복동아들이 될수 있도록 애정어린 마음으로 대하여 말하였다.

김일성고급당학교가 창립된 40돐을 맞을 때에는 특강적인 당건설사상과 리론이 전진적으로 집결되어있는 강의록 《조선로동당건설의 력사적검점》도 보내주시어 우리 당이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명도적 역할을 높이 맡아나갈수 있는 길을 밝혀주시었다.

김일성고급당학교가 창립된 40돐을 맞을 때에는 특강적인 당건설사상과 리론이 전진적으로 집결되어있는 강의록 《조선로동당건설의 력사적검점》도 보내주시어 우리 당이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명도적 역할을 높이 맡아나갈수 있는 길을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육친적인 사랑은 김일성고급당학교가 세워지고 세기가 바뀌어도 위대한 수령님의 영원한 당학교로 강화발전될수 있게 한 근본요인이었으며 당일군양성방향을 한치의 양보나 드린도 없이 절사관철해나갈수 있게 한 힘의 원천이었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고급당학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당학교, 당중앙의 믿음직한 당일군양성기관으로서의 혁명적사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고 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당의 존엄을 보신 당일군양성의 최고전당당계 김일성-김정일주의교육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학교사업을 정력적으로 조직해나간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 나라의 장래를 달려가던 아이들을 보라는 말이 있다. 오늘 세계인민들은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으로 이 땅위에 인류가 부러워하는 아이들의 활력을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상에서 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확신하고있다.

공화국헌법 제 28조 에드조 제 2항부터 제 3항까지는 《조선에서는 어린이들이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행복을 누리며 적극적으로 자라나고있다. 자애로운 명도자의 깊은 관심과 올바른 교육정책, 숭고한 미래애, 후대애를 지니는 조선의 어린이들이 정말 부럽다.》라고 격찬하였다.

김일성고급당학교가 창립된 40돐을 맞을 때에는 특강적인 당건설사상과 리론이 전진적으로 집결되어있는 강의록 《조선로동당건설의 력사적검점》도 보내주시어 우리 당이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명도적 역할을 높이 맡아나갈수 있는 길을 밝혀주시었다.

김일성고급당학교가 창립된 40돐을 맞을 때에는 특강적인 당건설사상과 리론이 전진적으로 집결되어있는 강의록 《조선로동당건설의 력사적검점》도 보내주시어 우리 당이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명도적 역할을 높이 맡아나갈수 있는 길을 밝혀주시었다.

김일성고급당학교가 창립된 40돐을 맞을 때에는 특강적인 당건설사상과 리론이 전진적으로 집결되어있는 강의록 《조선로동당건설의 력사적검점》도 보내주시어 우리 당이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명도적 역할을 높이 맡아나갈수 있는 길을 밝혀주시었다.

김일성고급당학교가 창립된 40돐을 맞을 때에는 특강적인 당건설사상과 리론이 전진적으로 집결되어있는 강의록 《조선로동당건설의 력사적검점》도 보내주시어 우리 당이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명도적 역할을 높이 맡아나갈수 있는 길을 밝혀주시었다.

김일성고급당학교가 창립된 40돐을 맞을 때에는 특강적인 당건설사상과 리론이 전진적으로 집결되어있는 강의록 《조선로동당건설의 력사적검점》도 보내주시어 우리 당이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명도적 역할을 높이 맡아나갈수 있는 길을 밝혀주시었다.

김일성고급당학교가 창립된 40돐을 맞을 때에는 특강적인 당건설사상과 리론이 전진적으로 집결되어있는 강의록 《조선로동당건설의 력사적검점》도 보내주시어 우리 당이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명도적 역할을 높이 맡아나갈수 있는 길을 밝혀주시었다.

김일성고급당학교가 창립된 40돐을 맞을 때에는 특강적인 당건설사상과 리론이 전진적으로 집결되어있는 강의록 《조선로동당건설의 력사적검점》도 보내주시어 우리 당이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명도적 역할을 높이 맡아나갈수 있는 길을 밝혀주시었다.

《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확신한다》

그 나라의 장래를 달려가던 아이들을 보라는 말이 있다. 오늘 세계인민들은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으로 이 땅위에 인류가 부러워하는 아이들의 활력을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상에서 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확신하고있다.

공화국헌법 제 28조 에드조 제 2항부터 제 3항까지는 《조선에서는 어린이들이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행복을 누리며 적극적으로 자라나고있다. 자애로운 명도자의 깊은 관심과 올바른 교육정책, 숭고한 미래애, 후대애를 지니는 조선의 어린이들이 정말 부럽다.》라고 격찬하였다.

나이여라야 보르노주정부 비서는 어느 한 회견에서 자기가 조선에 체류하고있는 기간 환관을 통하여 새 세대들에게 인제 주고있는 조선당과 정부의 뜨거운 후대사랑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라의 장래는 새 세대들의 모습에 비친다. 아이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에서 조선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확신하게 되었다. 유류야동병원을 돌이켜보고 그것을 절감하였다.》

김정은각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꾸러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린이들에 대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깊은가를 잘 알게 되었다.

...야야말로 조선은 아이들의 세상이다. 정말 뜨거운 후대사랑의 절정을 보았다. 조선의 어린이들이 미래를 떠메고나갈

역군들로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바란다. 《뉴델리 타임스》는 후대를 사랑하라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리프터이다. 후대애, 미래애를 높이고 어린이들을 키우려는 위대한 모습에서 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확신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은각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꾸러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린이들에 대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깊은가를 잘 알게 되었다.

...야야말로 조선은 아이들의 세상이다. 정말 뜨거운 후대사랑의 절정을 보았다. 조선의 어린이들이 미래를 떠메고나갈

역군들로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바란다. 《뉴델리 타임스》는 후대를 사랑하라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리프터이다. 후대애, 미래애를 높이고 어린이들을 키우려는 위대한 모습에서 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확신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은각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꾸러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린이들에 대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깊은가를 잘 알게 되었다.

...야야말로 조선은 아이들의 세상이다. 정말 뜨거운 후대사랑의 절정을 보았다. 조선의 어린이들이 미래를 떠메고나갈

역군들로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바란다. 《뉴델리 타임스》는 후대를 사랑하라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리프터이다. 후대애, 미래애를 높이고 어린이들을 키우려는 위대한 모습에서 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확신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은각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꾸러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린이들에 대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깊은가를 잘 알게 되었다.

...야야말로 조선은 아이들의 세상이다. 정말 뜨거운 후대사랑의 절정을 보았다. 조선의 어린이들이 미래를 떠메고나갈

역군들로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바란다. 《뉴델리 타임스》는 후대를 사랑하라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리프터이다. 후대애, 미래애를 높이고 어린이들을 키우려는 위대한 모습에서 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확신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은각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꾸러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린이들에 대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깊은가를 잘 알게 되었다.

...야야말로 조선은 아이들의 세상이다. 정말 뜨거운 후대사랑의 절정을 보았다. 조선의 어린이들이 미래를 떠메고나갈

리보익녀사의 묘에 화환 진정

엄밀한 애국자이신 리보익녀사 탄생 140돐에 즈음하여 5월 31일 만경대에 있는 녀사의 묘에 화환이 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원회의 제1위원장이시던 리보익녀사 최고사령관인 리보익녀사 탄생 140돐에 즈음하여 5월 31일 만경대에 있는 녀사의 묘에 화환이 진정되었다.

화환진정에는 오수용동지, 김수길동지, 리용호동지와 김용진 내각부총리, 김영태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당 부장, 정진기동, 근로단체, 성기관 일군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리보익녀사의 묘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되었다. 이어 근로단체, 성기관, 군사대학, 평양시내 당, 정진기동, 농장지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보고자는 김일성고급당학교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학교안에 당의 유일적 명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모든 학생들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참된 당일군들로 키우기 위하여 힘써주시고 있다고 말하였다.

모든 교직원, 학생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찬양하며 김이 빛나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명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사업을 주선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화환진정에는 오수용동지, 김수길동지, 리용호동지와 김용진 내각부총리, 김영태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당 부장, 정진기동, 근로단체, 성기관 일군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리보익녀사의 묘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되었다. 이어 근로단체, 성기관, 군사대학, 평양시내 당, 정진기동, 농장지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보고자는 김일성고급당학교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학교안에 당의 유일적 명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모든 학생들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참된 당일군들로 키우기 위하여 힘써주시고 있다고 말하였다.

모든 교직원, 학생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찬양하며 김이 빛나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명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사업을 주선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김일성고급당학교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학교안에 당의 유일적 명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사업을 주선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모든 교직원, 학생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찬양하며 김이 빛나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명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사업을 주선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화환진정에는 오수용동지, 김수길동지, 리용호동지와 김용진 내각부총리, 김영태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당 부장, 정진기동, 근로단체, 성기관 일군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리보익녀사의 묘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되었다. 이어 근로단체, 성기관, 군사대학, 평양시내 당, 정진기동, 농장지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보고자는 김일성고급당학교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학교안에 당의 유일적 명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모든 학생들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참된 당일군들로 키우기 위하여 힘써주시고 있다고 말하였다.

모든 교직원, 학생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찬양하며 김이 빛나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명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사업을 주선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김일성고급당학교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학교안에 당의 유일적 명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사업을 주선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모든 교직원, 학생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찬양하며 김이 빛나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명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사업을 주선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